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

# 祝 辭

2019. 6. 17.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 병 두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I. 인사 말씀

---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변화에 대해  
각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핀테크 산업에 항상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주시는  
정순섭 교수님, 이성복 박사님, 김규동 박사님,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상황은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IMF와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이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IMF] 3.7%('18.10) → 3.5%('19.1) → 3.3%('19.4), [OECD] 3.5%('19.1) → 3.3%('19.3)

이와 동시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은

기존의 산업과 결합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등의  
새로운 실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II. 글로벌 핀테크 환경 변화

---

인류의 역사에서 변화와 발전은  
늘 도전적인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해 왔습니다.

저성장의 구조적 추세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혁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해답을  
“혁신”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가 주도하는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등 기존의 금융선진국들은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적극 장려하여  
경쟁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동남아 등 이머징 마켓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낙후된 금융인프라를 핀테크를 통해 극복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있어서의 핵심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도해볼 수 있는  
실험적 환경을 누가 더 잘 조성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 III. 그간 정부의 핀테크 지원노력

---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대전환의 시대(Massive Shift)를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금융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핀테크 금융혁신을 금융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등을 통해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운영하여, 지금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하고 시장에 안착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결제 인프라 개방, 마이데이터 산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통해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금융생태계를 만들어, 핀테크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 IV. 하반기 정책방향 :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지금까지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개방과 경쟁, 그리고 혁신적 실험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을 길러낼 수 있는  
스케일업(scale-up)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세 가지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 ① 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맞춤형 규제완화

먼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을 육성해내기 위해  
전략적인 맞춤형 규제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을  
국내 규제환경에 적용해보니,  
절반 이상이 불법이거나 엄격한 허가요건 등을 거쳐야  
영업이 가능하다는 조사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모델의 국내규제 저촉 가능성 법률 검토결과(테크앤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혁신 유인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샌드박스의 일시적 규제특례와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하나하나 고쳐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해외 유망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전략적 맞춤형 규제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도  
영국 레볼루트(Revolut)와 같은 글로벌 유니콘이 출현하기에  
우호적인 규제환경\*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 EU PSD2, 영국 오픈뱅킹 등

이를 시작으로, 해외에서 검증된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할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고쳐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핀테크 랩이나 핀테크 업체 등을  
직접 찾아다니는 맞춤형 규제 컨설팅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환경이 어떤 것인지 조사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개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 ② 글로벌 유니콘 육성을 위한 핀테크 투자 활성화

다음으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핀테크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유니콘을 키워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 국내 유일의 핀테크 유니콘인 '토스(비바 리퍼블리카)'의 국내자본 조달률도 2.8%에 불과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핀테크 산업 성장 가능성에 확신을 갖고 스케일업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핀테크 지원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확대 여건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 ③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마지막으로, 지난달 성공적으로 개최한 글로벌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발판삼아,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인 “핀테크 로드”를 개척하고, 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으로의 진출도 적극 지원하는 등 우리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V. 맺음 말씀

---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도태되는  
사례를 수 없이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범선이었던  
영국의 로손號\* (Thomas W. Lawson)는  
시대와 기술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근본적 변화가 아닌 양적 팽창에만 집착하여  
돈의 수를 늘리며 증기선과 경쟁하다  
결국 전복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 20세기 초 범선에서 증기선으로 대체되는 전환기에 유일하게 7개의 돈을 단 최대  
규모의 범선으로 대서양 항해중 풍속을 이기지 못하고 영국 인근에서 전복(1927년)

이처럼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는 피상적 변화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서  
혜안을 모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